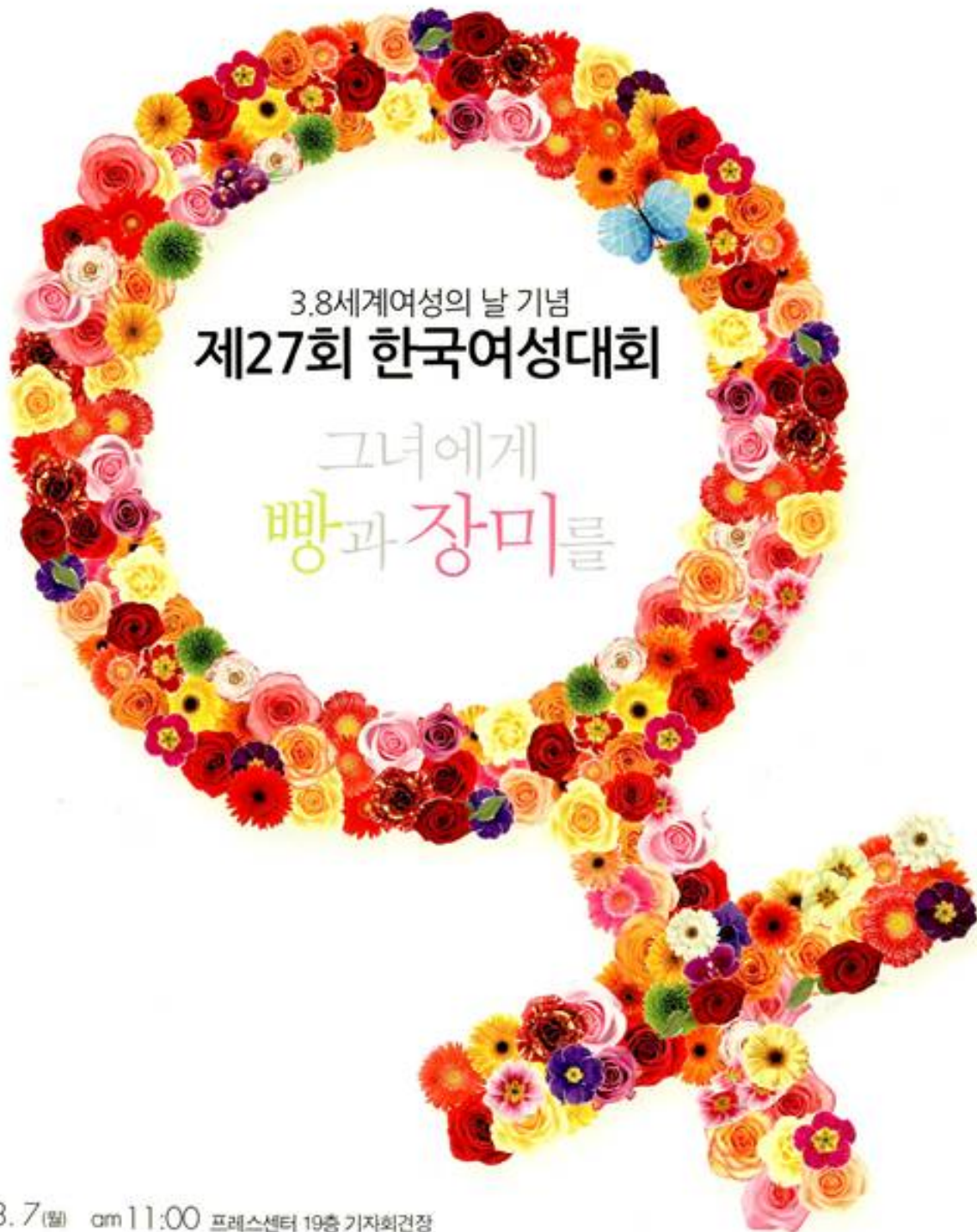


# HAPPY WOMEN'S DAY



기념식 2011. 3. 7 (월) am 11: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플래시몹 2011. 3. 8 (화) pm 12:00 명동예술극장 앞 pm 15:00 강남역 7번 출구 앞 pm 17:00 신촌 유플렉스 앞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평화로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 여성가족부 CBS SBS MBC SBS KBS YTN 한겨레신문사 W 여성신문사 OmyNews afreeca me2day SK하이닉스 협찬 SK에너지 ANKOMETEC KYOSO JPM

주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twitter @38womensday 38women.co.kr



## 우리아이들에게도 바른먹거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미국에 있는 에이미의 학교에서는  
먹거리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영양성분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식품을 교과서로 선생님은 먹거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말보다  
좋은 음식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이들을 더 바른 먹거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바른 눈으로 바른 먹거리를 고르는 아이, 풀무원이 키우겠습니다

바른먹거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Pulmuone*





한울

**보이는 기미만 밝히세요?  
피부 속 숨은 기미까지 밝히세요**

보이는 기미부터 숨은 기미까지  
**한울 고결 미백 에센스**

기미가 반지는 것을 막으려면 보이는 기미부터 속에서 자라는 기미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한울 고결 미백 에센스는 기미를 되돌리는 오백고에 숨은 기미를 잡는 오매 성분을 더해 깊은 기미 고민을 밝히드립니다. 깊은 다스랑-한울



NEW  
미백기능성인물  
수용액 100ml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이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한울은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한방화장품입니다  
•아리따움에서 한울을 만나세요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hannule.com



이선종  
(원봉고 교무,  
여성연합 후원회장)

## 오늘의 여성임을 감사하고 오늘의 여성으로 살아가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오늘은 여성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한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이 오늘의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기까지 100여년의 단결과 정성이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여권운동은 27년의 세월을 통해, 짧은 시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높은 결속력을 보이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합리한 착취와 차별의 벽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게다가 환경파괴, 먹거리저장, 교육 붕괴, 신자유주의 모순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회병폐는 여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우리들의 단결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27년의 단결과 노력은 여전히 높고 견고한 벽과 맞서 그 모순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성공하려면 여성 DNA를 가져야한다는 시대요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여성의 유연한 적응과 모성적 수용능력은 우리시대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시대 요구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된 실력을 보이고 협력해 나아간다면 오늘의 중심을 잡고 내일의 희망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해안으로 단결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곳에 미래의 희망과 대안을 여는 축복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기념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이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7회 한국여성대회'는 소중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열어주시는 내외빈의 모든 여성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모두가 오늘의 여성임을 감사하고 오늘의 여성으로 그 사명을 일깨우며 내일의 희망을 함께 열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문화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태동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 27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행사는 100년 전 미국의 여성 섬유근로자들이 불공정한 사회를 향해 '병(생존권)과 장미(인권)'를 원한다며 외쳤던 바람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성단체연합이 그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특히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을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니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문화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스물일곱번째로 개최되는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스물일곱번째로 개최되는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3·8 세계여성의 날'은 열악한 방직공장에서 여성근로자 146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908년 3월 8일, 여성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여 여성의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에 머물지 않고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의 권리' 실현에 앞장선 여성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은 100여년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야만 했던 흥대 청소노동자들을 보며, 또한 여전히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이 남성의 62.3%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이루어냅시다!



박경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는 꼭 축하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여성대회입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었던 냇물이 흐르고 못생명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무도 이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 없는거지요. 차별, 독점 그리고 불통의 가부장적인 이 땅위에 평등, 나눔 그리고 소통의 대안적 가치를 들고 씨앗을 뿌려온지 어언 27년이 되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사란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역사란 때로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등 여러분야에서 아직도 편견의 벽은 두껍고 갈 길은 멀지만 한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자기를 바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이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불편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함께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3.8세계여성의 날 유래

### 세계여성의 날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한다.

| 1900                                    | 1910                                                                                                                                                                                          | 1910                                                                                | 1922                                                                             |
|-----------------------------------------|-----------------------------------------------------------------------------------------------------------------------------------------------------------------------------------------------|-------------------------------------------------------------------------------------|----------------------------------------------------------------------------------|
| 미국 맨하탄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 이들 계기로 정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2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 한국여성의 날 유래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 1946~47                                                         | 1948                  | 1985                                                                                                      | 1987~                                                                 | 2011                                                                              |
|-----------------------------------------------------------------|-----------------------|-----------------------------------------------------------------------------------------------------------|-----------------------------------------------------------------------|-----------------------------------------------------------------------------------|
| 한국에서는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이 3월1일부터 8일까지를 부녀해방투쟁 기념주간으로 설정, 기념행사를 열었다. |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진다 | 3월 8일에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광우회, 여성의전화 등 14개 여성단체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한 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2010년까지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는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이라는 주제로 전국 247개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위원회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 오늘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겨울 너무 추워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이 3·8 세계여성의 날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1948년 맥이 끓었던 여성대회를 1985년 복원한 이래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이 있을 만큼 이 대회는 여성운동의 대표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이 대회를 지켜오신 분들은 대회장소에 들어서시면서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선, 늘 주말에 일·이천명의 규모로 진행되던 기념식을 올해는 소박하게 이곳 프레젠테이션에서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에게 빵과 장미'라는 감성적인 슬로건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2011년 한국여성대회조직위원회가 담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Again 1908 '그녀에게 빵과 장미'

100여년 전 미국의 여성섬유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데서 시작된 여성의 날은, 당시의 구호가 바로 생존권으로 상징되는 빵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이야기하는 장미였습니다. 이번 대회 슬로건으로 빵과 장미를 택한 것은 바로 G20을 개최한 OECD 가입국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아직 빵과 장미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근 휴대 청소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돌봄노동은 대부분 비정규노동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밥 한끼 먹을 조그마한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게 된 '전 YMCA 성차별철폐 연대'의 경우도 여성에게 총회회원권을 보장하지 않은 YMCA의 현실에 맞선 참정권 운동으로서 어쩌보면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성의 참정권이 100여년 전 여성들의 투쟁을 통해 쟁취했던 것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에게 빵과 장미' 슬로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착각되는 여성생존권과 인권을 다시 2011년의 문제로 꺼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성운동이 반드시 바꾸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27회 한국여성대회

다음으로 '기념식'과 '이야기' 그리고 '광장' 이렇게 세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기념식을 소박하게 하는 대신 이야기작업과 광장의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만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화하는 작업인 '허스토리 텔링'은 새로운 플랫폼인 온라인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이 소통될 것이기에 아날로그인(人)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좀 더 새롭고 젊은 공간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확장하려는 일환입니다.

광장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3·8 여성대회'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국 주요 도심에서 벌어질 플래시몹을 통해 '3·8 여성의 날' 자체를 알릴 것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주변의 누이, 여성동료, 엄마들에게 '고맙습니다' 등의 덕담을 하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캠페인은 벌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2011년 여성운동의 과제

올해도 여성운동이 주력할 과제는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 질 좋은 일자리 확충, 인권 3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권의 문제,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의 획득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3·8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우리들은 100여년 전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빵과 장미를 들었던 선배여성운동가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광장의 이벤트에 뜨겁게 호응하는 시민들을 확인하고 있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만나고자 여러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한 이번 3·8 여성대회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7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 기념식

\* 사회 : 권해효(여성연합 홍보대사, 배우), 김여진(배우)

- ▶ 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전 11시~12시
-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프로그램
  - 인사말
  - 제27회 한국여성대회 소개
  - 참가자 소개 및 축하
  - 성평등 디딤돌 & 걸림돌 발표
  - 제2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 퍼포먼스 '그녀에게 향과 장미'

## 전국 동시다발 플래시몹 'Happy Women's Day!'

- ▶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오후 12시~오후 5시
- ▶ 장소 : 지역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서울지역 : 오후12시 명동 예술극장 앞 / 오후3시 강남역 7번출구 앞 / 오후5시 신촌 유플렉스 앞
- ▶ 프로그램
  -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깜짝 플래시몹과 캠페인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향과 장미' 홍보물 배포

## 캠페인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고맙다고! 안아주세요 축하한다고!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니깐요

지금바로 [twitter](#) [facebook](#) 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 특별기획 'Herstory telling'

이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3.8여성의 날 블로그 <http://38women.co.kr>과 [NAVER](#) [해피빈](#) 을 방문하세요!

### 3.8세계여성의날 103주년 기념 제7회 경기여성대회

- ▶ 일시: 2011년 3월 12일(토)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 ▶ 장소: 수원역
- ▶ 주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국노동  
경기도본부 여성위원회
- ▶ 프로그램
  - 본행사: 함께하는 율동 '라인댄스' /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 내·외빈  
소개 / 대회사 / 축사 / 문예공연 / 발언 / 문화공연 / 합창
  - 거리행진: 수원역 도착 수원역
  - 시민난장: 전시 및 참여부스 프로그램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여성대회 'Again 1908'

- ▶ 일시: 2011년 3월 5일(토) 오후 1시~5시
- ▶ 장소: 창원 노동복지회관 대강당
- ▶ 주최: 경남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 ▶ 프로그램
  - 기념식: 대회사 / 격려사 / 축사 / 남성과 함께하는 3.8
  - 문화행사
  -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전시회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여성대회

- ▶ 일시: 2011년 3월 5일(토) 오후 2시~5시
- ▶ 장소: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강당
- ▶ 주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11년 광주여성대회 준비위원회(12개  
여성단체 및 정당)
- ▶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 프로그램
  - 본행사: 3.8 여성상 시상 / 광주여성민우회 시나레 공연 '이 부부가  
사는 법' / 광주여성회 좀바랜드 축하공연 / 광주여성선언
  - 홍보캠페인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축하합니다!'(3/8)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18차 대구여성대회

- ▶ 일시: 2010년 3월 8일(화) 오후 5시
- ▶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 ▶ 주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8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 슬로건: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 ▶ 프로그램
  - 사전행사: 대구여성인권센터 반성애매 퍼포먼스, 참여부스 프로그  
램 등
  - 본행사: 개회사 / 여성연대 / 대회사 / 내빈 및 참여단체 소개 / 성평등  
디딤돌 / 결함돌 발표 및 시상 / 축하공연 / 여성선언문 낭독
  - 거리행진: 대구백화점 앞 한일극장 2.28공원 앞 삼덕파출소 대  
구백화점 앞 정리

### 3.8세계여성의날 103주년 기념 'Daejeon Women's day(대전)-빵과 창미'

- ▶ 일시: 2011년 3월 8일(화) 오후 4~오후 6시
- ▶ 장소: 오봉정거리 입구
- ▶ 주최: 3.8세계여성의날 103주년 기념 대전지역행사 준비위원회
- ▶ 주관: 대전여성단체연합(준)
- ▶ 프로그램
  - 시민참여 프로그램: 3.8여성의 날 홍보 및 시민참여부스 운영
  - 본행사: 기념 퍼포먼스 및 영악발 발언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2회 부산여성대회

- ▶ 일시: 2011년 3월 7일(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 ▶ 장소: 부산일보 소강당
- ▶ 주최: 2011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2회 부산여성대회 준비위원  
회
- ▶ 주관: 부산여성단체연합
- ▶ 슬로건: 여성의 힘으로 변화하는 부산!
- ▶ 프로그램
  - 사전홍보 캠페인(3/3)
  - 본행사: 개회선언 및 3.8여성의 날 유래 소개 / 참가단체 및 내빈 소  
개 / 3.8 100주년 영상 상영 / 대회사 / 연대사 / 여당당 캠페인 설문  
결과 영상발표 / 여성선언문 낭독 / 38인 합창

### 3.8세계여성의날 전북여성대회 '여.성.으로'

- ▶ 일시: 2011년 3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
- ▶ 장소: 오거리 광장
- ▶ 주최: 전북여성단체연합
- ▶ 프로그램
  - 본행사: 3.8을 알리는 난타 공연 / 인사말 / 3.8 스토리 -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하는 38이야기 / 내빈소개 / 축사 / 행동하는 발언
  - 거리행진 - 시청물레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17회 울산여성대회

- ▶ 일시: 2011년 3월 5일(토) 오후 2시~4시
- ▶ 장소: 롯데백화점 광장(예정)
- ▶ 주최: 103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7회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 슬로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는 행동이다'
- ▶ 프로그램
  - 시민참여마당
  - 무대행사: 여는공연 / 여는인사 / 공연 및 발언 / 여성선언 / 대중놀이

### 3.8세계여성대회 기념 토론회 제주

- ▶ 일시: 2011년 3월 15일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 ▶ 장소: 제주시청 별채마루 세미나실
- ▶ 주최: 제주여성인권연대
- ▶ 주제: 여성·아동이 안전한 제주
- ▶ 프로그램
  - 격려사 / 인사 / 기조발제 / 토론 / 질의 및 응답 / 기념사진촬영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충북여성대회

- ▶ 일시: 2011년 3월 8일(화) 오후 2시~오후 5시
- ▶ 장소: 청량간 및 도청서문일대,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
- ▶ 주최: 충북여성연대
- ▶ 프로그램
  - 거리행진: 오프닝 / 시민발언 / 2010년 충북여성 10대과제 발표 / 거  
리행진
  - 기념식: 개회선언 / 내빈 소개 및 참가단체 소개 / 기념사 및 축사 /  
2010년 여성연대활동 보고 / 2011년 충북 여성 10대과제 / 충북여  
성 선언문 발표
  - 부대행사: 축하공연 및 공동체 놀이 등

# 2011년, 그녀의 빵 그리고 장미 허.스.토.리.텔.링.

3,8여성의 날 블로그 <http://38women.co.kr>과 **NAVER 해피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영우는 오늘도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와요?' 엄마는 영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직장을 다녔습니다. 영우가 태어나자 엄마는 영우를 시골 할머니댁에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7년은 주말 가족으로, 초등학교 6년은 매일 늦는 엄마를 기다리며 영우는 열 네 살, 올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일 때문에 비싼 엄마를 곁에서 보고 싶지만 오늘도 영우는 '엄마, 오늘 일찍 와요?' 기대와 궁금함에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엄마는 늦은 밤 퇴근을 합니다. '미안해, 엄마.. 오늘도 늦겠다.'  
- 엄마, 오늘 일찍 와요? 中

"다른 처녀들처럼 나도 결혼을 하여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으로 시집을 올 때 나라와 문화가 달라 적응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나를 도와주면 괜찮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알콜 중독자인 남편이 나를 더 괴롭혔다. 남편에게 나는 돈 없는 나라에서 끌려온 여자였다."

- 남편에게 나는 돈 없는 나라에서 끌려온 여자 中



- 외국인 주재원 -



"나는 식당에서 일해, 아이들 키우고 마흔이 넘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선택할 일이 별로 없었어. '가족같이 일할 분' 그 광고를 보고 시작했지. 딱히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일을 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 ..... 서빙 업무를 보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뽑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온 건데 함부로 대하는 손님도 있어 ..... 식당일을 하다보면 위험한 일이 많아. 주방은 좁고 음식은 팔팔 끓고 칼이며 식기구도 조심해야 해 .....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땐 자식들 얼굴을 생각해, 한 달만 또 한 달만 더 견디자고 하면서 십년째 일하고 있어. 월급은 해마다 똑같고 그만두어도 퇴직금도 없지 ..... 하지만 나 여기 일하고 있다고, 나의 노동을 보아달라고, 나를 노동자라고 불러달라고 한번쯤 꿈꾸기도 해. 그러면 이 같은 식당 안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을까. 구운 고기, 푸연 연기, 사람들의 왁자지껄함 속에 사라진 내 목소리도 다시 낼 수 있지 않을까."

- 어느 식당여성노동자의 이야기 中



"청소년 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업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더이상 업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고 싶었던 H. 그러나 업주는 당장 선불금을 다 갚던지 아니면 다른 데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업소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업소를 벗어나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H는 여성단체들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장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는 생존의 문제!! 中

"어릴 때 오빠에게서 겪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알콜중독이던 아버지나 그로인해 우울하고 힘들었던 엄마.. 부모님과의 문제도 저의 우울증과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알아보고 치유받고 싶습니다."

- 집단상담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 中



##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6년간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2005년부터 6년, 장장 1,895일은 파견직이었던 기륭 조합원들이 직접고용이 되기 위한 시간이었다. 기륭전자는 2002년부터 위성수신라디오 생산을 시작한 회사로 2004년 말에는 파견직 여성노동자 수만 300여명에 달하게 되었고 이들은 생산량에 따라 수시로 해고되는 처지에 있었다. 2005년 7월, 노동조합 결성당시 약 300여명의 노동자 중 2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기륭 사측은 '계약 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시작했다. 이에 기륭분회 회원들은 해고 중단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단식투쟁과 고공농성을 계속한 6년여의 지난한 투쟁 끝에 2010년 11월 1일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100여년 전 '빵과 장미'로 상징된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이 2011년 3·8 여성대회가 열리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노조가입마저 어려운 현실을 산다. 기륭분회의 투쟁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하고 불법파견,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했다.

### 반도체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가시화하고 노동건강권 투쟁을 펼치고 있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1.운 항암치료를  
신강한 모습으로  
2.시고.



어린 나이에 반도체 산업 공장에 취업해 이유도 모른 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삶을 마감한 여성노동자 '故황유미(2007), 故박지연(2010)'씨의 이야기는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가시화했다.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된 '반올림'의 활동으로 삼성전자 계열사에서만 백혈병, 뇌종양, 난소암, 루게릭병 등 희귀질환 피해자가 104명에 달했고 35명의 사망 소식이 사회에 알려졌다. 반올림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삼성전자 측의 산업재해 인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2010년 3월에 시작된 '삼성의 직업병 책임 인정과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제고를 촉구하는 국제 청원 운동'에 50개국 7천여 명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무책임한 대기업의 산업현장은 국내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할 것이다. 반올림의 활동으로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

### 세계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다 강제종영 된 'W' 제작진



시사다큐멘터리 <W> 제작진은 2005년부터 2010년 10월 증명하기까지 지난 5년간 국제사회의 전쟁과 여성 안권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빈곤과 성차별적 악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에 대한 취재를 지속적으로 기획했다. 네팔 여아들의 인신매매, 아프리카의 여성인권 침해 악습인 여성 할례, 예멘의 여성 강제 조혼 등 세계여성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이슬람 여성 복서들의 자유를 향한 도전, 뉴질랜드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학교, 중남미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사례 등 다양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슈와 사례들을 국내에 전하며 우리 사회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차별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여 우리 사회 성평등 인권인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잃은 강용석 의원



강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토론할 때 패널은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고 말하고,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저급한 여성인권수준을 보여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수개월째 계류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강 의원 본인도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여성인권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선거탐구생활' 동영상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여성을 우롱하는 선거동영상을 제작한 후,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공식적인 사과 없이 홈페이지에서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홍보동영상의 여당편과 후보자편은 여성유권자를 정치에 관심도 없고 바퀴벌레 다음으로 뉴스를 싫어해서 세상에 무지하며, 후보를 선택할 때 공약보다 후보자의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전제하였다. 영상을 제작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 여주인공이 정치와 한나라당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을 알리려고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동영상 파문으로 여성인권 의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 성매매행위에 면죄부를 받고 국민을 우롱한 '스폰서 검사'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6월 법무부는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한테서 금품·향응을 받거나 정씨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검사

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위 '검사 향응 접대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52)·한승철(47) 검사장에 대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사실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문제를 일으킨 몇 사람만을 검찰조직에서 내보내고, 성매매행위를 비롯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 속에서 검찰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는 실망을 넘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서울 YMCA 여성참정권 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종교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한

# 너머서

(前서울YMCA 성차별철폐 회원연대)

### 평등권과 참정권을 향한 서울 YMCA 여성회원들의 100년만의 외침

서울YMCA 여성참정권 투쟁이 2011년 1월 27일 서울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했다. 한국 사회는 1948년 여성참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며 80년대 민주화운동과 90년대 여성관련 법제정 운동 등을 거쳐 성평등 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2010년까지 서울YMCA는 여성에게 총회회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1만 여개의 YMCA 중 여성총회회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서울YMCA가 유일했다. 2003년 2월 28일 서울 YMCA 제100차 총회장에서 서울YMCA 현장이 여성회원의 총회회원권을 인정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사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당시 김성희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은 서울YMCA 총회 역사상 회원 자격으로 여성이 총회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최초의 사례다. 1903년 창립 이래 100여 년간 서울YMCA에는 단 한 명의 여성 이사로 없었고, 2002년 당시 1,200명에 이르는 총회원 중 여성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간부에 해당하는 간사직급 33명 중 여성은 두 명에 불과했다. 반면 낮은 직급의 실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현장 활동을 책임지는 자원봉사자의 70~90%가 여성이었다. 2002년 11월 서울YMCA 개혁재건회의는 이러한 차별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후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여성을 위한 기도회, 서울YMCA 여성선언문, 여성회원 권리회복과 참여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발표' 등 활동을 통해 1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며 여성들의 외침을 조직하여 8년여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여성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획득하여 고질적인 종교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였다.

### 침묵을 깨고 사회 전체로 확대된 종교계와 시민단체 내 여성의 평등권을 향한 연대

서울YMCA 제100차 총회 이후 여성특위와 여성회원들의 활동이 안팎으로 활발히 전개되며 2004년 5월 '서울YMCA 성차별 철폐를 위한 회원연대위원회(공동대표:김성희,이석행)', 9월 한국YMCA 여성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이영자,최영철)를 발족하고 서울YMCA 여성참정권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투쟁을 전개했고, 국가인권위의 성차별개선권고까지 이끌어냈지만, 2004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여성회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총회회원권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총회원을 결정하는 재량권이 회원위원회와 이사회에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성차별 관행을 용인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2005년 4월 민변이 공익소송을 시작하며 20명의 여성변호사(대표변호사 정연순)들이 동 사안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같은 해 9월 김성희 외 51명의 원고들은 서울YMCA를 상대로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다. 그러나 2006년 2월 서울지방법원은 세 번째로 여성회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에 92명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며 '시대착오적으로 여성인권을 짓밟으며 참여를 가로막는 성 차별의 즉각 해소'와 '모든 여성회원에게 평등조건하에 총회회원권 부여'를 촉구하는 범사회적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2007년 한국YMCA전국연맹이 서울YMCA를 제명하기에 이르는 1년여간 1인 시위와 총48회의 목요집회, 소복시위 등이 계속되었다. 2007년 1월에는 '서울YMCA 성차별 철폐 회원 연대'와 추가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150명의 여성과 남성들이 모여 <너머서>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너머서>는 '넘은 것 부수기'를 넘어서 '새것 만들기'에 힘을 쏟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조직으로 자리 잡고 서울YMCA 여성참정권 운동을 계속해나가며 우리 사회 전체에 진존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만들기'로 운동 영역을 확장한다. <너머서>의 활동은 조직의 편견을 넘어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 일상의 평등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가시

화했다. 조직 내부의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확산을 위해 운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연대를 넓히고 여성운동의 발전에 기여했다.

## 종교계 성차별 관행을 알려내 성평등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2011년 '서울YMCA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해 온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38명의 여성회원들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승소까지 소송 기간만 5년 5개월이 소요되었고, 서울YMCA 성차별 철폐 운동은 8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대법원 승소의 배후에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여 꼼꼼하게 소송을 추진한 정연순 변호사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소송을 지원한 백승헌 변호사의 활약이 있었다.

2011년 2월 24일 서울YMCA 정기총회장에는 운동을 함께한 여성회원 세 명이 회원자격으로 참석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YMCA 측은 어떠한 반응도 사과도 없었고 총회장에 들어선 여성회원들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은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시작이자 가부장적 조직 안에 새겨진 선명한 균열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변화이며 희망의 시작이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서울YMCA 성차별 철폐 운동을 통해 종교계 여성회원들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시화되었고 일부 남성 회원들의 인식 변화와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녀들의 투쟁이 종교계 성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것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 서울YMCA 성차별 철폐 운동 경과

|          |                                                |             |                                                                        |
|----------|------------------------------------------------|-------------|------------------------------------------------------------------------|
| 1989     | 서울YMCA 청년YMCA 여성위원회 창립권 요구                     | 2006. 1     | 서울YMCA 여성회원 73명 103차 총회원권 인정 가져본 신청                                    |
| 2002. 12 | 서울YMCA 개혁과 재건을 위한 회원비상회의 '여성특위' 구성             | 2006. 1     | 서울YMCA 이사회 한창재장 공사회원을 '사람'에서 '남성'으로 개정                                 |
| 2003. 2  | 서울YMCA 100차 총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 결의문 채택 | 2006. 2     |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                                         |
|          |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 2006. 2     | 서울YMCA 제103차 총회 남성단체 한창재장만 부결                                          |
| 2003. 10 | 서울YMCA 이사회 여성특별위원회 해체                          | 2006. 3     |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집회 시작                                              |
| 2004. 1  |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진정서 제출                             | 2006. 4     |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운동 회원들 서울YMCA 위원에서 배제                                  |
| 2004. 2  | 서울지방법원 서울YMCA 101차 총회 의결권, 선거권 인정 가져본 신청 기각    | 2006. 6.3   | 제24회 한국YMCA 전국대회, 서울YMCA 퇴회 및 퇴회에 준하는 제재조치 결정                          |
| 2004. 2  | 여성참정권 인정 촉구 1인 시위 시작                           | 2007. 1. 25 | 서울YMCA 대의원제당연직 40%, 선출직 60%, 선출직중 한 성이 80%를 넘을 수 없다 등을 골자로 하는 한창재장만 공지 |
| 2004. 5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YMCA 성차별 개선 권고                       | 2007. 2. 22 | 제48차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집회(폐회)                                        |
| 2004. 5  | 서울YMCA 성차별 철폐를 위한 회원인대위원회 발족                   | 2007. 2. 23 | 여성회원을 종로회관 앞에서 소복 시위                                                   |
| 2004. 5  | 한국YMCA 전국연맹 서울YMCA 여성참정권 즉각 인정 권고문 채택          | 2007. 2. 25 | 한국YMCA 전국연맹, 서울YMCA 제명                                                 |
|          | 한국YMCA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 2007. 6. 28 | 서울지법 인사재13부 손배소 기각 판결                                                  |
| 2005. 2  | 서울YMCA 총회원 결사미행 가져본 신청, 가짜이사회 재창건이다            | 2007. 7. 26 |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제기                                                         |
| 2005. 3  | 3.8 여성의날 서울YMCA 이사회 성평등 결의문 수상                 | 2009. 2. 10 | 서울고등법원 인사14부 서울YMCA에 손해배상 판결                                           |
| 2005. 5  | 국회 여성평등포럼(국회의원83명) 서울YMCA 성차별 시정권고             | 2009. 3     | 서울YMCA 대법원에 상고                                                         |
| 2005. 9  | 서울YMCA 여성회원 50명 서울YMCA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1. 1. 27 | 대법원 상고심 승소판결(38명의 여성회원들에게 각 1,000만원 배상 판결)                             |
| 2006. 12 | 서울YMCA 성차별철폐 연대회의 세계인권회의 날 인권상 수상              |             |                                                                        |
| 2006. 12 | 서울YMCA 여성총회원권 요청 남성회원 서울YMCA 명예훼손으로 회원 제명      |             |                                                                        |





차별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향한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재단



대표 최열



세상을 바꾸는 힘,  
여성들을 지지합니다.



작한여행

www.goodtravel.kr

(02) 701-9071



여성이 주체가 되는 행복!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  
생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가칭)



성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연합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서울YMCA성차별철폐회원연대

공동위원장 이석행



여성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이화민주동문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스스로 즐겁고  
자신있게!

최문성미  
학습코칭연구소  
02-835-5077



유기농 채소의 상큼한  
기운을 담은  
여성이 희망입니다!

동네부익

02-325-3700



여성들이  
법과 사회생활에서도  
주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장미는  
투투플라워에서

투투플라워  
02-2265-2020

## 조직위원회 / 함께하는사람들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민회, 새움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 3·8세계여성의날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illegible]

제27회 한국여성대회 도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활동영역: 광동제약, 아름다운 커피, 열성제작 P, 조대희PD, 미디어몽구, 칼라TV, **플래시몹** 안무지도, 김사대(플랜인미  
디어 대표), **플래시몹** 홍보, 장윤주(모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홍보대사)

기획·진행 여성연합 김미란(기획부장), 김현아(부장), 박차옥경(사회권국장), 백수민(활동가), 손여선(인턴 활동가), 오보람(활동가), 유일영(부장), 이구결숙(사무처장), 이지운(활동가), 이영훈(인턴활동가)

디자인 센터



# 가족은 따뜻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가족이 힘을 모으면 쉬워집니다  
혼자서는 외로운 시간도  
가족끼리 눈을 맞추면 행복해집니다  
누군가 늘 곁에 있다는 든든함과  
같은 곳을 본다는 일체감을 주는 이름  
가족은 참 아름답습니다

가족에게 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때  
교보생명이 함께합니다

  
**KYOBOLIFE** 교보생명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http://www.genderlibrary.or.kr)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나무는요, 탄소통조림이에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고마운 일을 하니까요!



■ 유한김벨리는 26년 간 3,9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CO<sub>2</sub>(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화한 직경 9m의 통선  
죽구멍 크기의 숲은 1년 간 이 통선 10개 만명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 통선구멍의 탄소흡수능은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고마운 탄소통조림이에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몸 안에 탄소를 남기는 대신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는 훌륭한 일을 하거든요.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의 지구와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유한김벨리